



유한회사 비타민G&P, 사랑의 장학금 천만원 기탁

유한회사 비타민G&P가 전북도교육청에 사랑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에 따르면 유진숙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2명은 30일 도교육청을 방문, 서거석 교육감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비타민G&P는 전주에서 관측물,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사회책임기업이자 여성기업이다. 유진숙 대표는 "우리 학생들은 전라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전북의 초중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작지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학금을 기탁해 준 비타민G&P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를 통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30일 무주군의회 상임위원실에서 올해 첫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자문위원회(위원장 오광석)는 오는 6월 8일부터 15일간 실시될 제2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운영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원들은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청취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의 기능과 중요성, 냉해 피해 대책 등 농업분야, 관광분야, 아이들에 관한 정책 등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군의원들과 의정자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해양 의장은 "소신있는 의정활동, 행정을 견인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제9대 무주군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새롭게 박차를 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의회의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쓴소리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호원대, 마음회복 프로그램 진행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지난 5월 11일부터 재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마다 4회에 걸쳐 운영 중이며, 다음 달 1일에 종료된다. '마음회복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얻는 스트레스에 대해 학생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극복할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적응적 삶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매체를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의식의 검열을 적게 받도록 해 역동을 불러 일으키고, 집단의 상호작용을 쉽게 유발시켜 자기 표현 및 타인 이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해 사전/사후에 검사를 실시하고 객관적 변화도를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효과성을 확인하고,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수치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으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한 명은 "그동안 몰랐던 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됐고, 지친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해경 진로심리상담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나를 더욱 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도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재정지원 필요"

김관영 도지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동참

전북도가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전국 원전동맹(23개 기초자치단체)에 가입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도로 시작해 누리소통망(SNS)에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인증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는 릴레이 행사다. 이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장과 안전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을 개정만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청사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도민들과 함께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덕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안동준)는 음·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동행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해 위험에 노출된 3가구를 발굴해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음·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동행정'은 민선8기 남원시의 6대 시장목표의 하나로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에 해당한다. 이는, 음·면·동장의 대민행정 서비스 전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안동준 면장(덕과면 행정복지센터)은 맞춤형복지팀(이혜경 팀장)과 함께 취약계층 가구 방문을 우선하여 살림행정에 나선 결과를 토대로 가정의 달 5월의 시책사업을 '덕과면 러브하우스'로 정하고 도움이 긴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첫 번째 가구는 목거노인 가구로 쥐구멍을 통해 밤마다 쥐가 들어와 벽지가 배설물로 엉망이 되고 악취로 잠을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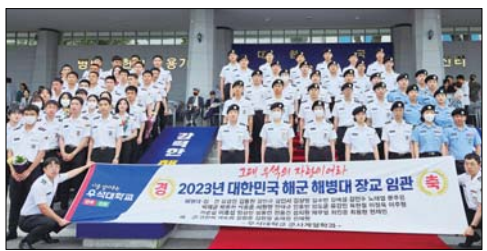
이루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한 가구는 집 안 화장실이 없어 야외 변소를 사용하고 쉼터 등 주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또 한 가구는 저장강바중 세대로, 발견 당시 방은 곰팡이와 습기로 가득했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과 옷가지, 길거리에서 주어진 쓰레기와 장기간 방치된 음식물들에 해충이 들끓고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33회 전북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 개최

전북도내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지부가 주관하는 '제33회 전라북도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가 지난 27일 오후 2시 전주월드드림경기장 관공사에서 열렸다. 전북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는 도내 옹변, 스피치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개인 및 평생학습 활성화, 자비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안옥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회장, 함경식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이사장, 김기수 전북리더십연구원장, 정운천 국회의원, 임승식 전북도의회 의원,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원, 박찬숙 전북재향군인 여성회장, 박영춘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이사, 김연경 소풍문화예술봉사단장 등 내빈들과 스피치인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박석재 천문연구원장의 시인을 위한 무료특강, 개회식, 공로자 표창수여식, 시낭송·옹변 등 재능 발표,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의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공로자 표창 수여식에서 황금식·손병열·서철·이은경·유자·신미자·하지연·광영옥씨가 행사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장기자랑 입상자로 전문택씨가 대상을, 임원선씨가 최우수상을, 임여향씨가 우수상을 수상받았으며, 조인숙씨가 우등상을, 김대곤·이은경씨가 장려상을 수상받았다. 화합상으로 전주교육대학교 주간과정이 대상, 원광대학교 스피치과정이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해군 6명·해병대 33명 장교 배출

우석대학교 군사학과·군사안보학과·군사기술학과 졸업생들이 해군과 해병대 초급 장교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에 따르면 지난 28일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 134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총 346명이 장교로 임관한 가운데 우석대학교 졸업생 39명(군사학과 10명·군사기술학과 18명·군사안보학과 11명)이 소위 계급장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13일 입교해 해군사관학교와 해병대 교육훈련장에서 11주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으며 군사지식과 전투체력, 부대 지휘능력 등을 함양해 왔다. 이날 임관한 신입 장교들은 병과별 초등군사교육을 거친 후 각 부대에 배치돼 해양수호의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천현 총장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군인 정신을 밑거름 삼아 군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훌륭한 장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춘향사랑 가족 힐링 걷기대회

제8회 춘향제 행사로 지난 27일,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는 남원시민과 향우, 관광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의 아름다운 농촌민들기 캠페인과 춘향사랑 가족 힐링 걷기대회(남원용성로타리 클럽 주관)를 겸해 제9회 전국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들과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아름다운 농촌민들기 캠페인은 농촌환경 정비·깨끗한 농촌산물 생산·바른 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유도해 다시 찾고 싶은 농촌 마을을 만드는 의미이며, 남원용성로타리 클럽이 10여년 전 시작한 춘향사랑 가족 힐링 걷기대회는 시민 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사항들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송미경 진안군 보건소장,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

진안군 송미경 보건소장이 마약퇴치를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최근 강남 화원기 마약 음료 사건으로 우리 생활 주변 가까이 스며든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작됐다. 송미경 소장은 "마약으로부터 군민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세대별 공감 맞춤형 캠페인과 지속적인 마약의 위험성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다음 주자로 진안군의료원 조백관 의 료원장을 지명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남원시 방문 현장 소통 간담회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30일 남원경찰서를 방문해 업무 유공 경찰관 표창 수여 및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형 남원경찰서장과 간부들이 참석, 안상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성리(省理)·성사(省事)·성심(省心)의 '살림의 치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강황수 전북청장은 남원의 치안 현장을 위해 힘쓰는 경찰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 인정받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진장축협 임직원, 진안 고향사랑기부의 날 운영

진안군은 지난 28일 무진장축협농협(조합장 송제근)이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의 날을 운영하고 기부금 340만원을 모금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진장축협농협은 송제근 조합장을 비롯한 무진장축협농협 임직원 102명이 무진장·무주, 진안·장수지역의 발전을 위해 1,020만원을 모금해 진안, 무주, 장수 각 지자체에 340만원씩 기부했다. 송제근 조합장은 "진안군에 본점 사업장을 둔 지역축협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WPL, 세계평화선언문 제10주년 기념식 개최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글로벌12지부가 지난 27일 전주시 삼천전 기점빌딩전수관 앞 하천변에서 HWPL 세계평화선언문 제10주년 기념식 및 평화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약 5,0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된 것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도시를 포함해 59개국 89개소에서 진행되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HWPL 이만희 대표는 "지난 25일 행사에서 자신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최전방에서 직접 겪은 참혹한 전쟁의 비극, 전쟁 후 폐허가 된 과거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기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